

# (불) 다루기와 (시간) 다루기

얼마 전 강원도에서는 산에 큰 불이 났다. 그 불로 인해 사람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과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자연과 문화의 산물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큰 화재 앞에서 우리는 말을 잃는다. 평소에는 단지 편리한 도구라고 여겨졌던 불이 처참한 화재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불이 처음부터 지니고 있었던 이율배반적인 속성에 대해 실감하고 망연자실하는 것이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불 다루기 기술은 이러한 불의 이율배반적 속성과 맞서면서 오히려 그 속성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 불의 이중적 가치와 인간의 욕망

인류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는 불의 경험은 파괴적 위험과 도구적 유용성이라는 두 가지 심상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불의 이중적 가치는 불의 상징을 이루는 의미론적 다양성의 기초이다. 불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옛 이야기들은 종말, 재앙, 징벌, 소멸, 정화, 생산, 활력, 생명, 변화, 문명 등 다양한 주제와 쉽게 결부된다. 동양의 삼황신화에 나오는 불 이야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수르트와 무스펠의 이야기, 바이블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인도의 아그니 이야기 등,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 무척 많은 이야기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한편, 옛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문화적 상상력에서도 불은 흥미로운 소재가 되곤 한다. 가령, 최근 다이애나 윈 존스의 원작 소설을 애니메이션화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그러한 불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거기서 불의 악마 켈시퍼는 하울과의 계약에 의해 성의 난로에 그 생명과 파괴성이 묶여지고 길들여진 채, 움직이는 성을 축조하고 유지하며 성에 운동력과 생명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불의 양면적 가치를

오가는 다양한 의미들이 이처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불의 이중적 가치와 관련된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이 스며들어 있다. 그것은 불의 위험에 대한 방재적(防災的) 욕망과 불의 유용성에 대한 도구적 욕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욕망은 사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인간이 불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일한 희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는 불은 다른 곳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가게 되거나, 주변에 더 태울 것이 없는 경우 현재 불타고 있는 것만을 다 태운 후에 꺼져 사라져버리게 된다. 통제되지 않는 불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심지어 무기력할 뿐이다. 반대로 만약 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은 세계에 엄청난 힘을 과시할 수 있게 된다.

## 연금술의 불 다루기

예로부터 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특히 불을 연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 강한 불을 지피고 통제하는 능력은 새롭고도 경이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종교학자 머치아 엘리야데에 따르면 야금술과 연금술에서 필수적인 불 다루기 기술은 자연의 변화에 필요한 시간을 조정하는 시간의 테크닉이기도 하였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중국을 포함하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야금술과 연금술에 전제되었던 생각은 모든 광석과 금속이 대지모의 모태에서 자라는 태아와 같이 성장한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 금은 완전한 성숙과 불멸성의 상징이다. 자연에서 모든 광석과 금속은 지열과 태양열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의 변성을 거쳐 마침내 금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석과 금속을 모두 녹여낼 만큼 강한 불은 기나긴 시간을 단숨에 압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연금술사의 도가니에서 용해되어 죽었다가 살아나서 재탄생되는 황금으로의 변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졌다. 이처럼 연금술은 강한 불을 가지고 광석과 금속의 변성과 성장을 도와 시간을 압축시킴으로써 대지모의 출산을 앞당기는 것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의 리듬을 대신하려는 경이로운 기술이다. 한편, 인간이 시간과 자연의 리듬을 바꿀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신의 한계상황을 초월할 것을 꿈꾸게

하기에도 충분하다. 그러므로 야금술과 연금술의 상상력 속에 담겨진 불과 시간의 이야기는 도구적 인간(호모 파베르)의 구원론을 진술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구원을 꿈꾸는 종교적 인간(호모 펠리기오수스)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술(이후로는 야금술과 연금술을 함께 지칭한다)에는 항상 불의 이율배반적인 이중적 가치와 관련된 인간의 두 가지 욕망이 함께 스며들어 있다. 연금술의 꿈은 불의 도구적 활용에 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꿈은 불에 대한 도구적 욕망만으로는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 여기에는 그토록 강한 불꽃을 일으키면서도 원하지 않는 화재는

막고자 하는 방재적(防災的) 욕망의 동반이 필요하다. 불이 통제되지 않는 한, 시간의 통제도 불가능해져 연금술의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잘 다듬어진 연금술은 자신의 목적론(teleology)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연금술이 화재를 야기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달라진다. 화재는 시간을 탈선시키기 때문이다. 화재 속에서 연금술사의 도가니의 안과 밖의 경계는 무너진다. 거기서 목적론적 시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시간의 흔적을 모두 소거하여 혼돈스러운 원초적 '처음'을 되불러낼 뿐이다. 시간의 단축을 통해 완전한 성숙을 이루려고 하던 연금술의 꿈은 화재 속에서 오히려 원점으로 돌아가고 만다. 자연적 시간의 흐름이 지닌 목적론을 일탈하지 않도록 화재로부터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연금술의 필요조건이었기 때문이다. 연금술은 시간의 흐름의 방향성을 거스르지 않고 시간을 압축시켜 완성을 앞당기려는 것이지, 시간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연금술은 시간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는 오랜 구원론적 몽상으로 이를 위해선 불이 완전히 통제되어야 한다.

불의 유용성은 도구적 욕망과 연결되며 연금술에서 시간을 압축하는 기술을 요청한다. 또한 불의 위험은 방재적 욕망과 연결되어 연금술에서 시간의 일탈 방지를 위한 기술을 요청한다. 실로, 연금술에서 불 다루기와 시간 다루기는 구별되지 않는다. 불의 통제가 시간의



통제로 전이되는 연금술에서 테크닉과 구원론은 만나 뒤섞인다.

## 오늘날의 불 다루기

불을 통제하는 인간의 능력이 극도로 강화된 오늘날, 불을 활용하는 지식과 능력에 찬사를 보내고 권위를 부여하던 시기는 이제 지나갔다. 불을 통제함으로써 시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실존적 욕망은 더 이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 불은 여전히 정화, 변화, 생산에 사용되지만 그러한 도구적 불이 구원론적 시간과 연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오늘날의 언어가 지닌 문자적 의미 그대로의 완전히 '도구화' 된 불의 현

존을 목격한다. 아마도 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인다. 더 이상 갈망되지 않는 도구적 욕망의 자리에는 욕망이 낡은 산물의 끊임없는 무성생식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현대의 도구적 인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존속하는 유용성과 위험이라는 불의 두 가지 속성은 현대의 도구적 인간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처참한 화재 현장에서 '위대한 도구적 인간'은 그저 무기력할 뿐이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형태의 불의 전문가가 언급될 필요가 있다. 불의 두 가지 속성을 따라 옛 연금술사의 꿈에 동시에 스며들어 통합되었던 도구적 욕망과 방재적 욕망은 은연중에 서로 분리되어 각각 추구된 것으로 보인다. 방재적 욕망은 연금술사의 도구적 욕망에서 분리되어 연금술 외부에 있던 일반인들의 실존적 요청과 결합되었다.

실존적 삶 속에서 통제되지 않은 불이 일으키는 화재는 꿈의 상실이요 좌절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재앙이기도 하다. 화재는 오랜 세월을 거쳐 축적된 시간의 흔적들을 해체해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을 마구 뒤섞어 놓거나 아예 시간을 처음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붕괴시킨다. '불을 잡는 기술'의 전문화가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제 불의 통제권은 연금술사의 도구적 욕망과 분리된, 그리고 현대의 도구적 인간의 욕망과도 분리된, 독립적인 방재적 욕망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추구된다. 소방관과 소방서 등 비교적 새로운 전문영역의 등장은 이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옛날이라면 연금술사에 붙여졌을 '불의 전문가'라는 명칭은 현대의 도구적 인간보다는 오늘날의 소방관에게 더 어울리게 된 듯하다. 물론 이때 발생하는 의미의 변화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불의 이중적 속성과 그와 관련된 인간의 두 가지 욕망으로부터 인류가 발전시켜온 불과 시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옛 연금술사의 사례에서만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사례에서도 불을 다루는 기술은 시간을 다루는 기술로도 읽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옛 연금술사의 사례에서 볼 때, 불과 시간의 기술은 도구적 인간의 구원론과 종교적 인간의 테크닉이 뒤섞여 있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삶의 방식이 아주 달라져버린 우리 현대인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예전의 구원론과 테크닉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아니면 우리는 부엌, 쓰레기 소각장, 도자기 가마,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화장터, 전쟁, 화재 등, 불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읽어낼 수도 있을까? 대답은 독자들 각자의 몫으로 열려져 있다. (🌀)

